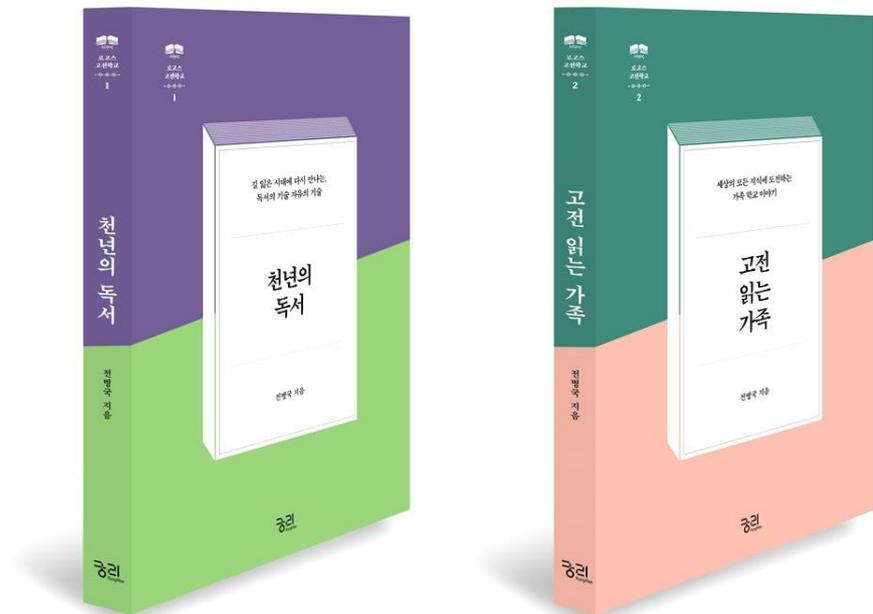


## 제3독. 수사 독서

책은 사랑이다. 수사 독서는 책을 평가하면서 가슴으로 삶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문법과 논리 단계에서는 주로 저자의 말을 들었다. 이제 내가 이야기할 차례다. 내 안으로, 새롭게 꾸밀 지식의 숲으로 저자를 초대한다. 다음 세 가지 작업을 차례로 진행한다.

- 책을 평가한다.
- 책을 묵상하며 읽는다.
- 서평을 쓰고 토론한다.



## ■ 수사 1: 문법적 평가 - 세계관 분석

“복녀의 도덕관 내지 인생관은 그때부터 변하였다.” – <감자>

작가가 그리는 세계의 틀을 분석한다. 평가하기위해서 나의 세계관과 비교한다. 판단 이전에 상대방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다.

항목	책의 세계관	나의 세계관
1. 세계는 어떤 곳인가?		
2.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3. 문제는 무엇인가?		
4. 열쇠는 무엇인가?		

## ■ 수사 1: 논리적 평가 - 주장 평가

책의 주장을 판단한다. 찬성, 반대, 유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다. “책의 핵심 주장 10가지”는 논리 독서에서 정리한 목록에서 주장만 간추린 것이다.

책의 핵심 주장 10가지	평가 (찬성/반대/유보)	평가 이유와 근거

책의 핵심 주장 10가지	평가 (찬성/반대/유보)	평가 이유와 근거

## ■ 수사 1: 수사적 평가 - 공감 평가

### 공감/설득력/표현법

저자의 주장(소설이라면 인물과 사건)에 공감이 되는가? 설득력이 있는가? 왜 그런가?

저자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가? 효과적인가? (문체, 수사법, 화자(話者)의 시점 등)

### 책의 장점/강점

### 책의 단점/약점

## ✦ 찬성과 반대의 이유 검토

프랜시스 베이컨은 진리에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불렀다. 누군가의 주장을 판단하는 순간은 언제나 우리가 우상의 노예로 사는 것은 아닌지 판단할 좋은 기회다.

### 1. 종족의 우상(Idols of the Tribe)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분명한 근거와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는가? 감정이나 다른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 2. 동굴의 우상(Idols of the Cave)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분명한 논리는 없고 취향에 가까운 것은 아닌가? 모든 것을 항상 거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가? 반대편에 있는 다른 관점은 무엇인가? 반대 관점으로 생각하면 찬성이나 반대가 뒤집어지지 않는가? 두 관점을 교대로 생각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 3. 시장의 우상(Idols of the Market Place)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자가 사용한 단어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 때문은 아닌가? 책의 키워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저자가 의도한 뜻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 4. 극장의 우상(Idols of the Theater)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이론 체계를 잣대로 삼고 있는가? 그 체계를 점검해 보았는가? 지나치게 신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약점이 없는가?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타당하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 책이 또 다른 이론 체계를 생각할 기회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 ■ 수사 2: 목상하며 읽기

“고전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신탁이다.” – 헨리 데이빗 소로

①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주제와 줄거리)

② 맞는 말을 하고 있는가? (책의 주장과 나의 평가)

③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 책과 나눈 이야기(산책하며 발견한 꽃들)

- 내 인생과 교차한 “그 한 구절”

## ■ 수사 3: 서평쓰기

---

기본적인 서평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 ✦ 서론 (책 이름과 읽게 된 사연)
    - ①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 ② 맞는 말을 하고 있는가?
    - ③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 ✦ 내 인생과 교차한 그 한 구절 (필요하면 포함)
-



## ■ 수사 3: 토론하기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나의 스승이 꼭 있다.  
선한 점은 골라서 따르고, 나쁜 점은 고친다.”- 공자

---

다음 원칙을 참고해서 토론한다.

- ① 미리 읽고 참여한다.
- ② 서평을 쓰고 참여한다.
- ③ 입은 부분만 토론한다.
- ④ 토론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다.
- ⑤ 본문의 근거가 없으면 주장할 수 없다.
- ⑥ 다른 책을 끌어들이지 않는다.
- ⑦ 정답과 권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 ⑧ 자유롭게 말한다.
- ⑨ 의견이 달라도 존중하고 경청한다.
- ⑩ 삶으로 이어지게 한다.

논리 독서 단계에서 심화 연구를 시작했다면, 최종 토론 시간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순서를 가질 수 있다. 모임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

독서 토론 풍경을 스케치해보자.

## ■ 독서후애(讀書後愛)

독서 후에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 지난 독서 과정을 돌아보자. 앞으로를 생각하자.  
책에서 배운 지혜를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

증자(曾子)가 전해준 세 가지 질문으로 자신을 돌아본다.

마음을 다했는가?

한결같았는가?

배운 것을 익히고 실천했는가?